



제6회 국제인쇄기술컨퍼런스 및 제5회 대한민국인쇄대상 시상식

제6회 국제인쇄기술컨퍼런스(IGAtec2010)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회장 김진배)와 월간 인쇄계(대표 안석현)가 공동 주최한 제6회 국제인쇄기술컨퍼런스(IGAtec2010) 및 제5회 대한민국인쇄대상 시상식이 지난 9월 9일 오전 10시부터 컨텍스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IGAtec2010은 '디지털로 열여가는 스마트프린팅의 세계'라는 주제로 아그파코리아와 Xingraphics, 성도GL/솔루원, X-rite/미디어 머신, 한국하이델베르크 등 5개 기업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최신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의 장

개회식에 이어 Hutchson Color의 돈 허체슨 대표가 기조연설을 했으며, 김정희 아그파코리아 부장이 '친환경적 관점에서의 한국 인쇄산업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Xingraphics의 Safwen Hijazi 부사장과 Cathy Hu 아태 세일즈매니저가 회사 소개와 함께 판재시장의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오전 마지막 순서로 나선 김민수 성도GL/솔루원 솔루션사업부 대표의 'Web top Printshop'이라는 주제로, 엠레이아웃과 엠서버 등을 이용한 웹탑퍼블리싱 시스템을 소개했다.



김진배 회장의 기념사모습과 홍우동 회장의 축사 모습

이어진 오후 세션에서는 X-rite AP 비즈니스 마케팅 Arthur Kwok 디렉터가 'X-Rite|Pantone: Helping you Achieve ISO-12647' 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마지막으로 김정남 한국하이텔 베르그 과장이 '디지털인쇄기와 매엽인쇄기를 보완하는 스마트프린팅솔루션' 이라는 제목으로 하이텔베르그의 애니칼라에 대해 소개했다.

김진배 대한인쇄기술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6회째를 맞은 국제인쇄기술컨퍼런스는 인쇄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 세계 인쇄산업의 최신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의 장으로 인쇄기술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지금 인쇄산업은 미디어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고 있어 이제 더 이상 인쇄가 고전적인 가치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제5회 대한민국인쇄산업대상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회장 김진배)의 주최로 열린 제5회 대한민국인쇄산업대상이 지난 9월 9일 킷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대한민국인쇄산업대상은 각 분야에서 인쇄산업부흥을 위해 노력해 온 인쇄산업 종사자들에게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장상 표창, 우수 임직원 표창 등을 수여했다.

김진배 회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쇄산업과 같은 중 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인쇄인들이 화합을 바탕으로 도전하는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가 원하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인쇄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인쇄인은 물론 기자재 공급업체와 언론계, 인쇄단체가 하나 된 마음으로 난관 극복을 위한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에는 기술혁신부문에 천용관 팬다콤프로세스 대표, 기술진흥부문에 박범석 한국하이텔베르그(주) 전무이사, 기술개척부문에 박정희 (주)시노하라코리아 대표이사, 산업진흥부문에 한영국 리치미디어 대표, 산업개척부문에 윤명구 명신물산 대표, 환경혁신부문에 박성구 한국소문사 대표, 환경경영부문에 유영호 중앙문화인쇄 대표, 경영관리부문에 김흥기 영화인쇄(주) 대표이사, 교육혁신부문에 신익재 서울인쇄센터 교육담당, 인력진흥부문에 송경철 부경대학교 공학박사 등이 선정돼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

Hutchson Color의 돈 허체슨 대표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